

Report

Revolution OS 감상문

과 목 명	오픈소스서비스개방방법론			
담 당	윤석찬 교수님			
제 출 일	2010	년	9 월	10 일
학 년	3	학번	0200572036	
성 명	문 경 대			

70년대부터 MIT 공대에서 시작된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은 소프트웨어 특허라는 독점적인 혹은 독식적인 개념이 생겨나며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이에 반대하여 생겨난 것이 GNU 운동 (GNU is Not Unix)이다.
이 영화는 그 중심에 있는 리처드 스톨만과 GNU 하면 생각나는 GNU/Linux의 창시자 리누스 토발즈로부터 시작한다.

이 운동이 시작한 계기와 대표적으로 성공한 소프트웨어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지만 마지막에 보여지는 리눅스 기업의 주가 하락은 감독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오픈소스 모델이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되묻는 것 말이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나는 오픈소스, GPL의 적용된 프로그램 당연히 무료로 제공이 되고 사업, 소프트웨어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러나 영화에서 비추어준 상황은 내가 생각했던 잘못된 부분을 고쳐 주었다.
오픈소스의 진정한 의미와 사업, 소프트웨어 발전과의 영향성에 대해서 말이다.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때문에 단순히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판매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하기 전이나 후나 각종 전략 부분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전략적인 부분에서 오픈소스를 적용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잘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일 것 같다.

국내에서는 다음, 네이버가 게시판이 사용되는 웹에 필수적인 요소인 웹 에디터 부분을 공개하여 화제가 되었다.

외국에서는 구글, 썬, 그 외 기존 GPL에 따라 만들어진 프로그램들 등 여러 업체, 여러 단체가 오픈소스를 채택하여 일부 또는 전체 소스를 공개하고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

이중 썬, 구글 등은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 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으며 오픈 소스로 기업에 좋은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알린 것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윤을 내고 있는 좋은 예이다.

물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지는 회사에서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끝으로 이 영화의 영향 덕분에 현재 내가 개발을 하고 있는 몇몇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GPL 라이선스 기반으로 소스를 공개를 하고 이 소스를 보고 이용 하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분명 내 프로그램을 오래 보다 남게 하여주고 오래 기억하게 도와주는 부분임을 확신할 수 있게 하였고 보다 발전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도 확신하게 해주었다.

더불어 오픈소스 전략은 사업의 성공성 보장을 떠나서 매우 좋은 시도이자 혁신적인 시작이라 생각이 든다.